

# 요한이서 강해

## AN EXPOSITION ON THE APOSTLE JOHN'S SECOND EPISTLE

{2판}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19



##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마 5:18; 요 10:35; 갈 3:16; 딤후 3:16),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성경 원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 본문은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교회의 전통적 견해를 버릴 타당한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헬리어 비잔틴 다수 사본들의 본문은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 원본의 본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게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다.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기독교 신앙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 해석과 강해는 복잡하고 화려한 말잔치보다 성경 본문의 바른 뜻을 간단 명료하게 해석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주석이나 강해는 성경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한 작은 참고서에 불과하다. 성도는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주석과 강해는 오직 참고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 내용 목차

서론 .....	4
진리 안에서 행함 .....	5

## 서론

요한이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 점에 대해 초대 교회의 전통은 분명하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0-215년경),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264년경 사망), 및 키프리안(258년 사망)은 본 서신을 사도 요한의 서신으로 인용하였다. **수신자인**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는 어떤 교회의 여성도와 그 자녀를 가리키는 것 같다. 본 서신의 **저작 연대**는 주후 85-90년일 것이다.

본 서신의 **특징적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다. 4절, “너의 자녀 중에 . . .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아울러 본 서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교리를 저버린 이단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을 밝히 교훈하였다(7-11절).

## 진리 안에서 행함

### 1-6절, 진리 안에서 행함

[1-2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엔 알레데이아 ἐν ἀληθείᾳ)[진리 안에서](KJV, NSAB, NIV)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 서신을 썼다고 본다. ‘장로’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보다 더 친근감이 있다. 서신을 받는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보다 ‘한 여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절에 ‘너의’라는 말과 5절에 ‘부녀여’라는 말과 13절에 ‘네’라는 말과 ‘네게’라는 말은 한 교회보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여성도와 그의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며 하나의 작은 교회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는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요한은 자신을 ‘진리 안에’ 있는 자로 표현하며 다른 성도들을 ‘진리를 아는 자들’로 표현한다. 또 그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그러하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6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17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13에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표현하였다. 진리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약속이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며 이 진리가 그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 진리는 그들 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다.

성도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 자들이다.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또 그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고 말한다. 또 그 까닭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라고 말한다. 진리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었다. 진리가 우리를 한 가족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이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가족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형제요 그의 자매이다(마 12:50). 성도들의 이 사랑의 교제에 교회의 교회다운 점이 있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sup>1)</sup>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원한다. ‘진리’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다 가리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

1) Byz ⋈ vg<sup>mss</sup> cop<sup>bo-mss</sup> arm 등에 있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힘을 얻고 성화(聖化)를 이루어간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린다. 그 평안은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여유와 환경적 평안도 포함한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우리에게 더욱 넘칠 것이다.

**[4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도다.**

본 서신은 사도 요한이 한 여성도의 가정에 보낸 개인적 서신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그의 교훈은 한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 여성도의 자녀들 중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믿은 것 같지는 않다. ‘너의 자녀 중에’라는 말은 그 자녀들 중에 일부가 잘 믿었음을 암시한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다 잘 믿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란 10계명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성경의 모든 교훈대로 사는 것을 뜻한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도록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 죄인들의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큰 기쁨이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큰 기쁨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들에서 성도들을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라고 표현하였다(빌 4:1; 살전 2:19-20).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목사와 성도들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전파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이 되지만(빌 3:18), 그것을 받아 그대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강조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강조는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고 유익하다. 본 서신에 나타난 대로, 그 여성도가 처한 형편은 이단들의 미혹이 있는 형편이었다. 이단과 오류가 교회 안팎에 많이 들어와 있을 때 성도들은 사랑이 식어지기 쉽다. 주께서도 그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언급하시면서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12).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성경 진리를 굳게 지키며 이단과 오류를 배격하는 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배운 기본적인 삶이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남겨 주셨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3:34, 35).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기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행하지 않고 십계명을 범하거나 성경말씀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행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고 결국 한가지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진리를 가장 귀히 여기며 확신하고 사랑하고 널리 전파해야 한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사역에 대한 내용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그것이 성경의 요지이며 기독교 복음의 요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성경 교훈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해야 한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의이며 선이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특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다. 우리는 복음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 7-13절, 이단을 경계할 것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는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이단자를 가리킨다. 이단은 마귀의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다(갈 1:8-9; 딤후 2:17-18). 벌써 사도 시대에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 안팎에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들의 정체에 대해 언급한다.

본절에 언급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 곧 그의 성육신(成肉身)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자들은 요한일서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었다(요일 4:2-3).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요 1:14). 말씀이라고 불리신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요 1:1). 본래 신적 인격 즉 하나님이셨던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 인격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신성과 인성, 신적 본질과 인적 본질이 결합되셨으나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1문답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救贖者)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분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며 확실히 이단들이다.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너희는 삼가 우리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게 하라(전통사본).

‘온전한 상’은 사도들과 목사들과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뜻한다. 사도 요한은 그 성도와 그의 자녀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께 상을 얻는 일이 되게 하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3:6-8, “나는 심었고 아볼로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상은 전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9절] 지내쳐(파라바이는 παραβαίνων)[이탈하여, 범죠히어](전통사본)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전통사본)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이다. 이단은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다(요일 2:22-23; 4:1-3).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께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0-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

## 하는 자임이니라.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이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는 그의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을 가리킨다. 이단은 사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그를 용납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아야 한다. 로마서 16:17-18에 보면,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너희가 배운 교리](원문)을 거스려[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했고, 디도서 3:10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교훈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적용해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이단은 교황을 우두머리로 한 천주교회의 사상과 조직체이다. 또 오늘날 가장 심각한 이단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신학교들에 용납하는 개신교회의 역사적 대교단들은 포용주의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또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배격하지 않는 교회연합운동(WCC)과 복음주의 활동(WEA)도 잘못이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그들의 교회들과 신학교들에서 배제해야 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자유주의적, 포용주의적 교회들을 책망해야 하며 그런 자들과의 교제와 연합 예배나 연합 활동들을 금해야 한다.

**[12-13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우리]<sup>2)</sup>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sup>3)</sup>

---

2) Byz  $\aleph$  vg<sup>mss</sup> arm geo 등이 그러함.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였다.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통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이단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이단은 속이는 자이다. 이단은 성경에 밝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 그는 특히 그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즉 그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부정한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이다.

둘째로, 우리는 온전한 상을 얻어야 한다. 특히 전도자들은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의 일한 것에 따라 상을 얻을 것이다. 전도자와 목회자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고전 3:6-7). 사도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 볼 같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불타지 않고 그의 일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전 3:12-15). 또 주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부지런히 일하여 영혼들을 구원한 자들은 칭찬을 받고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마 25:21). 주 예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가 다시 올 때 그들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계 22:12). 우리는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 늘 깨어 있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이단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교리적, 윤리적 오류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 이단사설들이 많이 활동하는 말세에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

---

3) Byz vg<sup>mss</sup> arm 등에 있음.

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집에 들이거나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복음주의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천주교회비평 등.

---

## 요한이서 강해

---

2002년 4월 21일 1판

2019년 11월 25일 1판 수정중

저 자 김 효 성

발 행 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http://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oldfaith.net](mailto:oldfaith@oldfaith.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

ISBN 978-89-98821- -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5판]. 182쪽. 무료.
2.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2,500원.
3. 김효성, 기독교 윤리. [6판]. 240쪽. 4,500원.
4.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6,000원.
5.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6.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7.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80쪽. 900원.
8.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9.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무료.
10. 김효성, 구약성경강해 1. 878쪽. 26,000원.
11. 김효성, 구약성경강해 2. 1001쪽. 26,000원.
12.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2판]. 1014쪽. 26,000원.
13. 김효성, 창세기 강해. [3판]. 359쪽. 6,000원.
14.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판]. 204쪽. 4,000원.
15. 김효성, 레위기 강해. [2판]. 164쪽. 4,000원.
16. 김효성, 민수기 강해. [2판]. 182쪽. 4,000원.
17.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8.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강해. [2판]. 222쪽. 4,000원.
19.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판]. 233쪽. 4,000원.
20. 김효성, 열왕기 강해. [2판]. 217쪽. 4,000원.
21. 김효성, 역대기 강해. [2판]. 256쪽. 5,000원.
22. 김효성, 에스라 스헤미야 에스더 강해. [2판]. 129쪽. 3,000원.
23. 김효성, 욥기 강해. [2판]. 195쪽. 4,000원.
24. 김효성, 시편 강해. [2판]. 704쪽. 10,000원.
25. 김효성, 잠언 강해. [2판]. 624쪽. 8,000원.
26. 김효성, 전도서 강해. [2판]. 88쪽. 2,000원.
27. 김효성, 아가서 강해. [3판]. 88쪽. 2,000원.
28. 김효성, 이사야 강해. [2판]. 398쪽. 6,000원.
29.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2판]. 359쪽. 6,000원.
30.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2판]. 293쪽. 6,000원.
31.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32.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3판]. 223쪽. 5,000원.
33.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2판]. 373쪽. 6,000원.
34.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281쪽. 6,000원.
35.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2판]. 239쪽. 4,000원.
36.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2판]. 122쪽. 3,000원.
37.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2판]. 100쪽. 3,000원.
38.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2판]. 109쪽. 3,000원.
39.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판]. 145쪽. 4,000원.
40.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0판]. 34쪽. 600원.
41.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판]. 108쪽. 1,200원.
42. 김효성, 역, 어린이 요리문답. [7판]. 48쪽. 500원.

☆ 주문: 전화 02-334-8291, 이메일 oldfaith@hjdc.net

☆ 계좌: 농협 302-0401-6652-61 김효성